

19세기 동래 지역의 관영공사조직에 관한 연구

김 속 경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대건축복원사업단)

I. 머리말

II. 동래 지역의 관영공사 여건

1. 군사적 요충지인 동래
2. 무관중심의 향촌사회와 노동력
3. 관영공사의 협조체제

III. 관영공사의 내용

1. 관사의 중영(重營)
2. 동래부성의 축조

IV. 관영공사조직

1. 관사공사의 집행조직
2. 축성공사의 집행조직
3. 조직편성의 기준과 구성원

V. 결론

국문 요약

관영공사조직 연구는 당대 공사현황을 조명하기 위한 하나의 참조틀이며 주로 집행조직의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공사주체를 파악하고 공사체제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문헌고찰 중심의 연구이다. 지방의 관부시설(관사, 읍성 등)은 급속한 근대화과 시가지 변경으로 파괴되어 존재근거조차 멸실되었거나 잘못 알려진 것도 적지 않다. 관련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교사원이나 향교 등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존속하지 못하였고 전국적으로 총합된 읍지류의 한정적인 자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관영공사의 특성상 공사의 승인, 감독 등 공사행정절차가 수반되었음에 착안하여 공문류와 관련사료를 고찰하고 지방의 관영공사 사례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동래 지역은 대규모 관영공사사례가 많았던 지역적 특수성과 비교적 잘 남아있는 지방사료를 통해 관부시설의 규모와 조영배경을 파악할 수 있었고 변경된 현재의 유구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시기 자료가 잘 남아있는 19세기 동헌과 동래부성의 관영공사사례를 통해 공사규모와 전개과정을 밝혔다. 지방의 관영공사는 자체적인 수급구조로 전개되었고 향촌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었다. 동래 지역은 변방의 군사집결지로서 각 영진의 관영공사가 많았고 목재수급과 인력조달은 상호 협조체제로 이루어졌다.

관영공사의 집행조직은 공사감독, 내부사무, 불자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대규모 토목공사인 축성공사의 경우 역소별로 감독, 사무, 불자조달, 기술자 등으로 구성되며 관부의 모든 조직이 동원되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편성은 직접적인 건축기록이라기보다 공사행정에 따른 공문서이기 때문에 건축적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면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많은 사료발굴과 다각적인 연구의 축적으로 종합적인 관영공사의 실체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관영공사, 동래 지역, 행정문서, 공사체제, 집행조직

I. 머리말

동래 지역은 일본과 경계를 두고 있어 조선 초기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중시되었다. 특히 임란 후에는 동래독진이 설치되었고 좌수영과 산하 진보(鎭堡)체제를 갖춘 해방(海防)기지로써 군진이 집결된 곳이었다. 동래부와 영진(營鎭)은 각기 성곽과 관부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건축활동이 많았고 특히 대일관계가 악화될 때 변경의 군사시설 증강정책에 따라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래 지역은 개항이후 시가지가 일본인 전관거류지 중심으로 편제되기 시작하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시대의 제반시설들이 빠른 속도로 철거되거나 변경되었다. 결국 관부시설은 현재 과거의 규모와 비중에 비해 유구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동래부 동헌은 지방관의 집무처로서 지방행정의 중심이 되는 시설이었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용도와 구조가 변경되었다. 동래의 읍성인 동래부성도 일제의 도시계획에 따라 서문과 남문에 이르는 평지성곽이 철거되고 성첩을 따라 도로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취락 주변의 성벽이 집중적으로 철거되었다. 결국 동래는 역사성을 상실한 채 옛 지명으로만 남겨지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먼저 역사적 존재근거를 찾고자 문헌고찰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관부시설의 구체적인 건축기록은 건물과 함께 멸실된 경우가 많았다. 다만 관영공사는 특징상 상하부기관간의 공문을 남기고 있어 그 대체적인 건축규모와 공사과정 등 조영체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관련문헌은 주로 19세기에 집중되어 있어 한 시대의 왕성한 조영활동을 조명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는 기초사료인 동래 지역의 읍지류와 사례(事例)가 있다. 공사에 관해서는 행정공문인 「공문일록(公文日錄)」과 시설별 등록(騰錄)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1870년의 관영공사를 다룬 「성역급각공해중수기(城役及各公廨重修記)」를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그 외 동래 지역의 지방사 사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19세기 동래 지역의 동헌과 동래부성을 중심으로 공사배경과 건축규모 및 공사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또 조영체제의 한 부분으로서 집행조직 구성과 편성을 살펴보고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추적하여 직임의 역할, 공사의 주체를 밝히고 집행체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동래 지역의 조영활동과 각 공사가 갖는 시대적인 상황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고가 조선후기 지방 조영체제에 대한 연구로서 그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장차 이와

같은 사례 연구가 축적되어 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한국 건축사로 종합되는 데에 일조(一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동래 지역의 관영공사 여건

1. 군사적 요충지인 동래

조선후기 동래부사의 직함은 ‘통정대부행동래도호부사겸동래진병마첨절제사독진수성장(通政大夫行東萊都護府使兼東萊鎭兵馬僉節制使獨鎭守城將)’이었다. ‘통정대부’는 정3품 당상관인 문관을 말하고 ‘도호부사’는 동래가 ‘현’에서 ‘도호부’로 승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동래부사가 ‘동래진병마첨절제사’가 됨은 동래가 경상좌도병마절도사영 곧 경상좌수영 관하의 경주 진관에 속하였으나 이제 1655년부터 동래부에 독진을 설치함으로써 경주 진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래부사는 1690년(숙종 16)에 방어사를 겸하게 하였다가 곧 혁파하였고, 이 무렵부터 양산·기장의 군병을 합하여 통솔 지휘함으로써 동래는 변방의 기지로서 그 체제가 확립되었다. 마지막으로 1739년(영조 15) 동래부사가 산성과 읍성을 관리, 수호하는 ‘수성장’을 겸하게 되어 동래아문은 크게 격상되었다.¹⁾

그러나 17세기 말엽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방어태세는 비교적 허술한 편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약 100년이 지난 뒤인 1702년(숙종 28)에 이르러 경상도 관찰사 조태동의 건의에 따라 이듬해 동래부 금정산성이 새롭게 축조되었다. 이어서 1731년(영조 7) 읍성이 대규모로 수축되었다. 두 차례의 호란을 거치고 북벌의 논의도 좌절된 숙종대 이후 대청(對淸)관계가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자, 이에 따라 남변의 방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결과였다.

한편 좌수영 중심의 해안선 방어체제는 좌수영, 부산진성, 다대진성으로 구축하고 그 사이에 규모가 적은 진보를 두는 체제였다. 병영과 수영의 진보는 순영(巡營)의 주군(州郡)과 같은 곳이었다. 부산진을 관할하는 것은 순영, 통영, 수영의 삼영이며²⁾ 부산진 아래 6개의 포(浦)가 있었는데 그중 다대포가 진으로 승격된 후 양진체제였다. 다대진 관할하에 서평포 만호영을 두고 부산진 아래로는 울산 서생포, 두모포, 개운포, 포이포 등을 두었다.³⁾

1) 「동래부지」(1740), 건치연혁 참조

2) 「부산진지」(1894), 영문

3)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6, 「해제」, 「영남진지」 참조

동래 지역에서 중앙의 정책에 따른 군사시설 증강이 다시 일어났던 것은 고종년간 특히 대원군집권기였다. 임진왜란이후 진행되던 군사력 강화의 정책이 전쟁경험이 없자 다소 완화되었으나, 병인양요(1866)를 경험하면서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여 특히 조총을 사용하는 포군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대원군은 연해안 각 고을의 군사장비보수를 위해 5만 냥을, 또 전선의 수리를 위해 3만 냥을 내탕전에서 내려주었다.⁴⁾ 또 2년 후 오페르트가 이끄는 무장상선이 해안에 착륙해서 남연군묘를 도굴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의 침입으로 조선의 정부군과 커다란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원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전국적 차원의 지방포군을 증설하게 하였다. 1869년(고종 6) 6월, 경상좌수영에는 포군 50명이 증설되었을 뿐이지만 동래부에는 100명이나 증설되어 200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었다.⁵⁾

더욱이 이 시기 대일본관계도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 18세기 후반이후 왜관에서의 대일 무역은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1868년 3월 덕천막부(德川幕府)가 무너지면서 성립한 명치(明治) 신정부는 약 300년간 지속되어온 대조선과의 교린관계를 쇄신하고자 하였다. 이는 19세기 이후 일본에서의 조선진출론, 정한론(征韓論) 등의 사상적 조류를 반영한 것이었다. 1868년 12월, 이러한 의도가 담긴 일본측의 서계가 전달되자 조선정부는 격례(格例)에 위배된다고 교린관계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다면 교섭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서계를 거부하게 되었고, 동시에 일본에 대한 불신감과 서구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고조되었다. 이후 일본측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자 1870년 5월부터는 대마도주의 직임을 회수하고 명치정부가 직접 대조선 외교에 나서게 되었고 1872년 9월 조선정부의 소유인 왜관을 강제로 점령하였으며 초량관으로 개칭하여 마치 자국의 대외공관인양 인식되기에 이르렀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절경지인 동래부의 군사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동래부에서는 1870년부터 기존의 동래부성을 새로 수축하면서 성첩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여 30개의 치성을 쌓고 포루를 설치하여 포군이 주둔하게 하였다. 성문의 구조는 모두 옹성을 수축하였고 특히 남문은 중성구조를 갖추는 등 군사시설을 크게 강화하였다.

2. 무관중심의 향촌사회와 노동력

4) 연갑수, 2001,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62~163.

5) 연갑수, 앞의 책, pp.165~172.

6) 손승철, 1994, 「1872년 일본의 왜관점령과 조선침략」, 『군사』 28호.

동래 지역은 동래독진과 좌수영이라는 군진이 집중된 사회로서 조선시대 보편적인 향촌 사회와 공통된 요소도 있겠으나 상당한 차이점도 갖고 있었다. 지방의 관학교육기관이면서 향반사회의 구심점이 된 동래향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조선시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양반문화의 유산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군사집결은 동래가 조선시대 양반사회라고 하는 기본구조보다는 무관계급의 사회활동범위가 크고 신분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타지방과는 색다른 사회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⁷⁾

조선후기 다른 지역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군다민소(軍多民少)’의 양상이 동래 지역에서는 더욱 심하였다. 1780년(정조 4)경 동래부민으로서 관내의 각 영진 등에 소속된 능노군·군졸의 수는 4,203명이라고 했다. 이는 동래부의 노역대상 장정 8,069명의 절반을 넘는 수였다. 1806년(순조 6) 동래부사 오한원은 당시의 백성들이 ‘수영 소속이 본부 소속이기도 하고, 본부 소속이 다시 각 진 소속이 되어 동서응역(東西應役)하는 형편’이라고 하였다.⁸⁾ 수영과 각 진영에는 관사와 성곽을 갖추고 있어서 군사시설 정비라는 차원의 건축활동이 많았고 동래부 백성은 여러 가지로 수탈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각 진과 포의 병선축조나 성곽수축에 동원되었고 때로는 변방의 수호와 유지를 위한 군역으로서, 또 각 진영이나 관아의 물품을 공급해야 하는 등 18세기 이래 첩역이 극심하여 관영 건축공사에 동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18세기 후반부터 모군고립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었으나 여전히 민부의 부역실태는 존속되고 있었다.

3. 관영공사의 협조체제

동래 지역 관영공사는 중앙집권체제하의 수직적인 계통에 따른 행정절차로 이루어졌다. 동래부사가 경상감사에게 보고하면 그것이 조정에까지 이어졌는데 상소인 경우에는 경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비변사에 바로 전달되기도 하였다. 공사행정은 먼저 공사승인을 요구하는 절차가 선행되고 그 뒤 봉산작별 및 공급, 소요자재조달, 인력동원 등에 대한 절차가 뒤따른다. 이러한 공사과정의 모든 현안은 공문서를 통한 상하부기관간의 행정적 처리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의 관영공사는 중앙의 지원 없이 자체적인 제도적·행정적 범주 내에서 진행되었지만 인접지역인 양산·기장 및 수영을 비롯한 각 영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뒷받침되어 이루어졌다. 동래독진의 군사적 기능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협력관계에 있었던 양산·

7) 민선희, 1993, 「조선 후기 동래의 향반사회와 무청」, 『歷史學報』 제139집, 역사학회

8) 『동래향청향교고왕록』, 상소초(1806)

기장은 동래 지역의 관영공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관영공사에 목수 동원, 봉산 벌목과 공급, 노동력동원 등 여러 공사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동래 지역의 관영공사체제는 이 두 지역을 하나의 구조 속에 포함하여 고려해야 한다.

관영공사의 목재는 봉산의 관급목재 공급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봉산을 관리하고 있는 군진의 협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동래 지역은 대규모 수군 집결지로서 각 진·포마다 전선(戰船), 병선(兵船) 및 사후선(伺候船)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병선제조와 관리는 전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경상좌도 내에 봉산을 지정하여 수영에서 관리하였다. 따라서 관영공사에서 봉산의 목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상감사와 수사(水使)의 승인절차를 거쳐 벌목과 운반협조를 받아야 했다.⁹⁾

Ⅲ. 관영공사의 내용

1. 관사의 중영(重營)

동헌은 부사의 집무처로서 객사와 더불어 지방행정의 중심이 되는 건물인데, 동래 지역은 임진왜란 당시 초침지로서 더욱 철저히 파괴되었다.

전란 후 관사의 복구가 1605년경부터 시작되었다. 동헌이 복구된 것은 향교 이전이 있었던 다음해 1636년(인조 14)으로 부사 정양필이 부임했을 때였다. 신임부사가 도입하자마자 시작되어 입주이후 상당까지는 약 일주일, 이후 마감공사기간을 짐작해보면 1개월 정도 후에 새 동헌에 입택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 공사는 향반 1인과 지방 관속 단 2인만으로 구성된 간단한 조직으로 이루어졌다.¹⁰⁾ 공사의 감역을 맡은 문여옥은 1621년(광해군 13) 「향안(鄕案)」¹¹⁾에 이름이 올라있는 이 지방 향반이었다. 이 때의 정확한 공사과정은 알 수 없으나 건물규모는 10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¹²⁾

이후 1711년(숙종 37)에 부사 이정신이 동헌에 ‘충신당’이란 편액을 붙여 불렀고 동래부사가 조선시대말까지 이곳에서 집무를 했다고 한다. 충신당은 주변에 많은 관사와 객사, 대문, 행당 등을 배치한 건물군을 이루고 있었다. 1740년경 상황을 전해주는 「동래부지(東萊府誌)」

9) 김숙경, 2004, 『조선후기 동래 지역의 관영공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장 참조

10) 「성역급각공해중수기」에 이 공사의 간단한 조직이 기록되어 있다.

11) 「동래군지」(1937)

12) 「동래부지」, 관사조

에 의하면 동헌은 좌우에 동익랑(2칸), 서익랑(4칸)이 연결되어 있었고 대문(3칸), 외대문(3칸), 동중문(1칸) 및 공수청(11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또 동헌의 전면 서쪽에 찬주헌(14칸)이 있어서 마굿간으로 사용되면서 비장(裨將)의 거처가 되기도 하였다. 동헌영역의 동중문을 지나면 연심당(8칸), 회식당(6칸)이 있는 동쪽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 뒤쪽으로는 완대헌(8칸)이, 서쪽으로는 독경당(6칸)이 있었다. 이 영역이 동헌의 내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헌의 외대문은 1742년에 6칸의 중층 문루로 새롭게 건축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전반에 형성된 동헌영역은 19세기말까지 큰 변화 없이 규모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동헌은 1800년(정조 24)에 부사 김관주가 다시 크게 중건하였다. 부사 김관주는 1799년 5월에 부임하였고 완대헌을 파옥한 후 동헌을 새롭게 단장하였지만¹³⁾ 이후 4개월이 못되어 이임하게 되었다. 이 때의 공사도 향촌사회를 대표하는 좌수가 도감을 맡았고 그 외 감관 1인, 색리 1인으로 구성된 간단한 조직으로 이루어졌다.¹⁴⁾

한편 현재의 동헌은 1870년 부사 정현덕이 개건한 것으로 규모는 정면 7칸, 측면 4칸 총 28칸이다. 동헌 동측으로 익랑만이 연결된 채로 남아 있어서 그 이전의 동헌영역의 구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부사 정현덕은 1869년 11월 23일, 낡은 동헌을 개건하기로 결정한 후 공사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사조직을 편성, 정리하여 감영에 보고하였다. 도감은 향중에서 뽑고 공사감관과 색리를 선정하였다.¹⁵⁾ 기존 동헌 파옥일(破屋日)은 이듬해 정월 30일로 정해졌다.

목재 공급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전례대로 봉산 재목을 관급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송전(松田) 상황이 나빠서 관급목재로는 서까래나 수장목 등 주로 기늘고 약한 부재만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그 외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양산(私養山) 송전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주로 기둥, 보, 킷보 등 크고 굵은 주요 구조재를 동래 지역의 사양산 송전으로부터 벌목하여 매입하는 것이다.¹⁶⁾ 목재운반은 송전 부근 각 마을의 부역으로 이루어졌고 부족한 목재와 목수는 기장군으로부터 조달되었다. 1870년 2월 11일 개기제를 행하고 공사를 착수하였다. 파옥(破屋)과 개기제의 헌관(獻官)은 본 공사의 도감인 좌수 문규형이었다. 동헌 옛 터에 다시 땅을 파고 정초한 위에 기둥을 세우

13) 「성역급각공해중수기」의 기록상 완대헌 파옥기사에 이어 1800년의 동헌중건기록이 있으므로 완대헌을 파옥한 옛 재목으로 동헌을 건축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완대헌은 1870년에 가서야 중창되었다.

14) 「성역급각공해중수기」 참조

15) 「성역급각공해중수기」, 己巳 11월 23일, 동헌개건봉칙(東軒改建奉勅), 본 논문의 <표 4> 참조

16) 「성역급각공해중수기」, 己巳 12月 13日, 수영료정재사보장(水營料定材事報狀)

...材木如棟樑椽椽等以各面樂社及私養松田中從便斫用是乎乃其他椽木與修粧木實無不用之道乙仍丁茲以牒報爲去乎

기까지는 약 1달이 소요되었고 상당까지는 단 5일 정도 밖에 길리지 않았다. 입택일(入宅日)에는 각 고을의 대표와 진사 등의 유향과 변경의 첩사·만호 등을 초대해 잔치를 베풀었다.

기록을 통해 1870년 개건 당시 동헌일곽의 건물 구성을 살펴보면, 동헌은 28칸의 정청으로 남랑 5칸, 동랑 8칸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전면에 중문(內三門)을 두었고 대문은 6칸의 중층 문루(望美樓)였다. 북측에 있던 내아와는 1칸짜리 대문과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동헌의 좌측에는 52칸의 동래부 객사가 전면에 내삼문(좌우 익랑까지 합하여 총 10칸)을 두고 있었으며 정문은 6칸의 중층 문루(息波樓)로 구성되어 있었다.¹⁷⁾

2. 동래부성의 축조

동래부성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그 후 오랫동안 수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성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를 1731년(영조 7)에 동래부사 정언섭이 발의하여 과거의 것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새 읍성을 쌓게 되었다.¹⁸⁾ 세종조에 축조한 동래현성이 임진왜란으로 크게 파괴되고 난 후 읍성이 복구가 되지 못했었던 것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축조된 것이다. 정월부터 성터를 측량하고 일을 분담하여 각 패장에게 맡겼고 4월에 성첩이 완성되고 5월에 성문이 완성되었으며 7월에 문루가 세워졌다고 한다. 둘레가 2,280보로서 8리 정도 되는데 모두 새 돌을 떠서 축성하였고, 5개 성문을 갖춘 전체 성곽을 약 7개월여 만에 완성한 것이다.

이 공사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동래부축성등록(東萊府築城摺錄)」을 참고하여 전체 공사를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곽은 주변둘레가 2,881보 5척이며 리(里)로 계산하면 8리 1보 5척이 되고 여장(女牆)은 1,318타(垛)로 축조되었다. 작업별, 공사구간별 역소를 나누고 그 아래 다시 패를 나누어 공사조직을 편성하였다. 역소는 부석(浮石)작업에 3개, 여장 축성에 4개, 성첩 축성에 4개 그리고 5개문에 대하여 5개로 구분하였다. 성첩은 모두 새 돌로 축성하였다고 하며 6개문(동, 서, 남, 북 및 암문) 위에 문루를 건축하였다.¹⁹⁾

19세기에도 수성장을 겸한 동래부사는 관내의 동래부성 성곽보수 및 유지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했다. 동래부사 김석의 『내부일기(萊附日記)』에 의하면, 1859년(철종 10) 3월 초

17) 1870년 당시 동헌과 객사의 규모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성역급각공해중수기」 공해루대교량신건중수간수일록성책(公解樓臺橋梁新建重修間數列錄成冊)

18) 임란 이전의 동래부성의 규모와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에 조선전기 1446년 동래현형 김시로가 쌓은 읍성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굴되어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북천박물관, 2002, 「조선전기 동래읍성」(현장설명회자료)

19) 「동래부지」 성곽조, 북문에는 문루가 없었다.

10일 ‘조반을 먹고 나서 성 공사하는 곳에 가서 일꾼 등에게 술과 음식을 먹인 뒤 관아로 돌아왔다’ 는 기사와 동월 28일에는 ‘적취정(西將臺)에서부터 성을 순시한 뒤 해질 무렵 관아로 돌아왔다’ 라든지 또 4월 초7일에는 ‘당일 정원루에 앉아서 모대전(牟代錢)²⁰⁾ 1,200냥을 민부(民夫)에게 1냥 2전씩 나누어 주었다’ 는 등의 기사가 있다.

이 일기에서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경비지출내역²¹⁾을 통해서 공사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첩을 7개 역소로 나누어서 수축하였고 홍예문을 고쳐 지었다. 문루의 일부에 양판(陽板)과 대미(大彌)를 다시 바꾸었고²²⁾, 지붕의 기와도 교체하였는데 이 때 새 기와와 함께 묵은 기와도 섞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문루인지는 알 수가 없다. 공사기간은 약 두 달 남짓 되었고 5월 초2일 성역을 끝내고 난 뒤 향청, 무청, 작청을 인빈헌에 모이게 하여 낙성연을 베풀고 잔치하였다.²³⁾ 이 당시 성첩의 구조는 18세기의 상태 즉, 둘레 8리, 6문 체제, 보루 15처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부사 정언섭의 축성공사로부터 조선말기까지 진행된 동래부성의 공사연혁과 그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동래부성 공사연혁

구분	시 기		부 사	공 사 내 용	구 조
①	1731	정월22일 ~10월초3일	정언섭	축성 및 5개문과 문루건립	5개문, 둘레 2,881보
②	1734	(알 수 없음)	최명상	인화문 추가건립 15개 보와 누각건립	6개문 15개 보루
③	1857	(알 수 없음) ~7월19일	남종순	남문루 중수	상동
④	1859	3월일 ~5월10일	김 석	성첩 및 홍문 수리	상동
⑤	1870~ 1871	10월일 ~다음해 10월 25일	정현덕	30치성 및 6문 옹성 축성 서장대 신축 공해 신축 및 중수	6개문, 둘레 3,197보 5개 문은 옹성 30개 치성 및 보루 남문 외성 및 문루
⑥	1892	2월13일 ~4월16일	이호성	북문루 중건 및 성첩수리 서장대 개와	상동

20) 모대전 보리철의 조세가 모조이고 그것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는 돈이 모대전이다.

21) 『내부일기』, 기미5월초10일, 성역시폐장급각양잡비소입하기(城役時弊將及各樣雜費所入下記)

22) 陽板과 大彌는 이 공사에서 별도 경비가 책정되어 있는데(錢2兩4錢6分) 門樓에 사용된 특정 부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陽板은 洋板으로 짐작된다. 洋板은 창문이나 벽붙임에 사용하는 넓은 널이다.(張起仁, 『韓國建築辭典』 참조) 또 大彌는 ‘살미’를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 당시 門樓는 주로 이익공으로 제공의 단부는 쇠서나 운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래부성 남문인 朱鳥門의 문루시진을 참고하면 장여를 받고 있는 첨차에 직교해서 내밀어진 쇠서형의 부재가 있는데 이것은 문헌상에 보통 山彌(『華城城役儀軌』) 또는 沙乙尾(『昌德宮修理所儀軌』)등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부재명칭에 대한 지방적 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3) 『내부일기』, 기미5월초2일

철종년간의 1857년과 1859년의 공사는 동래부성의 성첩이나 문루 등에 대한 중수였다. 1859년의 보수공사 이후 보루(堡樓)가 많이 훼손되었던 것 같다. 1868년(고종 5)의 「동래부사례」 군기조(軍器條)에 의하면 ‘읍성 주회 8리1보5척(각 리 360보), 문루 6처, 보루 8처’라고 하고 있어 15처의 보루 중 7처의 보루가 훼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가 편찬될 당시의 부사는 정현덕인데 이처럼 성첩의 열악한 상태가 곧 대규모 성첩 수축공사를 피하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1870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성곽의 구조가 변경되고 성문이 수정되었으며 성내 공해 및 동래부의 관사 신축 등 대대적인 규모의 공사였던 것이다. 동래부성의 수축공사는 1870년 10월경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성문구조를 일신하였는데 그 중 남문은 익성을 내어 이중성곽구조로 만들었고 그 외 5개 문은 전면에 곡성(曲城)을 만든 용성구조로 변경하고 성문을 보호하게 하였다. 남문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1900년대 초반까지 존속하였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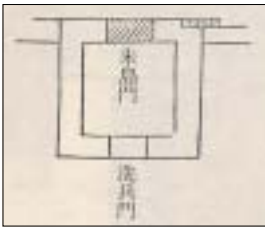


그림 1. 남문 배치도
(關野貞, 1990, p.212)



사진 1. 세병문
(關野貞, 1990, p.213)



사진 2. 주조문
(關野貞, 1990, p.213)

성 밖으로 돌출된 세병문의 문루는 세병루이고 주조문의 무우루는 중층의 누각이다. 위의 사진을 참고해보면, 체성은 돌을 깎아 쌓았고 여장은 전돌을 사용하였으며, 주조문 아래 성문 너머에는 또 다른 성문이 보이고 있어서 이중의 성첩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성첩 전체에 30개의 치성을 내고 그 위에는 각각 건물을 한 채씩 지어 올려 포루 및 초루(譙樓)로 삼았다. 각 성문 위에도 포루를 설치하였고 6개 성문 안에는 각각 6칸 규모의 관사를 설치하여 군교와 포수가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성곽의 구조는 1871년에 편찬된 「동래부읍지」의 읍성조(邑城條)에 기록되어 있다.²⁵⁾ 이 읍지는 정현덕 재임당시에 편찬된 것인데 신설된 공해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다만 동장대와 6문 수직소(守直所)만 언급되어 있다. 성첩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 關野貞 저·강봉진 역, 1990, 『한국의 건축과 예술』, 산업도서출판공사

표 2. 1871년 동래부성 성첩구조(「동래부읍지」의 읍성조)

성 첩				치 성	
범 위	문루(칸수)	성문구조	보루칸수	개 소	보루칸수
동 문	홍예문루(3)	옹성	1	3	1
남 문	홍예문루(3)	익성(翼城)	1	2	1
	세병문루(3)		1		
서 문	홍예문루(3)	옹성	1	3	1
압 문	홍예문루(3)	옹성	1	8	1
북 문	홍예문루(1)	옹성	1	6	1
인생문	인생문루(1)	옹성	1	8	1

〈그림 2〉는 새롭게 정비된 동래부성의 구조형태를 잘 나타내주는 「동래부지도(東萊府地圖)」²⁶⁾의 부분이다. 남문에서 객사까지 자오선축선상에 위치하고 객사를 중심으로 동헌 등 관사가 배치되어 있다. 각 성문은 성첩구조와 문루 및 보루가 있고 각 치성의 수가 기록과 일치하며 각각 보루가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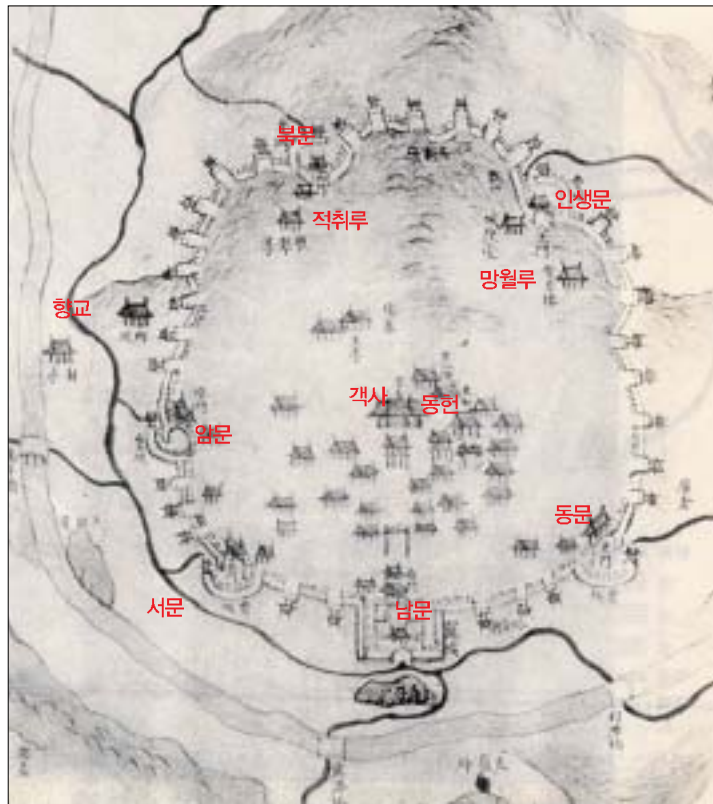


그림 2 「동래부지도」 부분(1872)

한편 조선말기까지도 동래부의 성곽수리는 계속되었다. 1892년(고종 29) 2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북문루와 적취정, 인생문, 암문 등의 보수와 성곽의 퇴락한 부분에 대한 공사 기록이 있다. 이 때 금정산성의 공해, 창고 등도 같이 보수하였고²⁷⁾ 순영에 공사의 시작부터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이 중수공사의 내용은 <표 3>과 같다.²⁸⁾

표 3. 중수공사 내용

구 분		공 사 규 모	공사내용
성첩	체 성	길이48파 높이2척	
	여 장	길이482파 높이1척	
		길이428파 높이반척	
문루	북문루	5량 3칸	중건
	암문루	바루 3칸	중수
	인생루	바루 3칸	중수
기타	서장대	9칸	개와

체성, 여장 등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북문루를 중건하였다. 암문루와 인생문루는 각기 마루 3칸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또 문판이나 비가 새는 곳을 보수하였고 서장대는 기와를 보수하였다.

- 25) 東門 紅靄門樓3間 甕城1處 堡樓1間 雉城3處 堡樓 各1間
 內南門 2層 紅靄門樓3間 甕城1處 洗兵門樓3間 堡樓2處 雉城2處
 西門 紅靄門樓3間 甕城1處 堡樓1間 雉城3處 堡樓 各1間
 暗門 紅靄門樓3間 甕城1處 堡樓1間 雉城8處 堡樓 各1間
 北門 紅靄門樓1間 甕城1處 堡樓1間 雉城6處 堡樓 各1間
 人生門樓 1間 甕城1處 堡樓1間 雉城8處 堡樓 各1間
 東將臺 3間
 6門 守直所 各6間

26) 『경상도 지도』중 「동래부 지도」

동래부성은 1731년의 동래부성 규모와 혼동되어 잘못 알려져왔고 이 지도에 표현된 성곽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최근에 치성 발간조사가 진행되어 본 논문에서 밝힌 1870년의 성곽의 존재근거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27) 「공문일록」 제3목록, 4월일, 순영료보초(巡營了報草)

28) 「공문일록」 제3목록, 6월16일, 순영방사통(巡營房私通)

本府 城堞體城全類 48把 높이 2尺
 女牆全類 482把 높이 1尺
 半類 428把 높이 반尺
 北門樓 5梁 3間 重建
 暗門樓 3間, 扶樓3間 新排 門板 및 雨漏處 修補
 人生樓 3間, 扶樓3間 新排 門板 및 雨漏處 修補
 西將臺 9間 改瓦

IV. 관영공사조직

1. 관사공사의 집행조직

관영공사의 집행조직은 감독자로 구성된 감동조직, 내부사무와 불차조달을 담당한 책응조직으로 편성되며 감동조직과 구별하여 성조조직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각 조직은 조직 책임자인 감관 1인을 두고 그 아래 하급군관 1인과 색리 1~3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향중의 대표로서 전·현직 좌수가 감동조직에 포함되어 감역을 담당하였다. 또 감동조직에 포함된 군관은 관할구역의 상급무관으로서 공사를 감독하는 감관이었다.²⁹⁾

다음은 관사공사 집행조직의 예이다. 1870년의 동헌개건공사³⁰⁾ 사례를 비슷한 시기의 초량객사중수공사³¹⁾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공사는 비슷한 시기의 관사공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래부 동헌은 동래부사가, 초량객사는 부산진 첨절제사가 주관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표 4. 관사공사 집행조직 비교

구 분	1870년 동헌개건공사	1873년 초량객사중수공사
감동조직	군관전찰방 김기두	전찰방 김기두
	도감좌수유학 문규형	개운만호 임봉상
	감관출신 박지연	두보만호 류운태
	간량 정한봉	훈도 안동준
	색리 문규봉 곽서봉 박진원 김준현	별차 현풍서 좌수유학 김 도 이방 윤호권
책응조직	군관전오위장 홍우인	감관절충 이기영
	전랑청 정현우	절충 김계북
	색리전이방 이시언	색리 변택호
	시이방 윤호권	
	회계색 김계북	
성조조직		감관 박두연
		절충 정한봉
		색리 송상중
		유치형 송종은

이 두 공사의 총감독관인 감동은 군관이면서 전에 찰방을 지낸 김기두로 동일하다. 또 향청의 수임이면서 향촌사회의 대표인 좌수는 감역도감이라는 중책을 맡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감동조직 속에 포함되었다. 이는 각 면, 리임(里任)과 민정의 부역동원을 지도하며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동헌공사에서 좌수 문규형은 개기제를 집행하는 헌관도 담당하고 있었다. 관할처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체제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동래 지역의 공사여건이라는 공통된 조건 속에서 전개된 공사라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이 두 조직의 차이점은 감동조직원이 현재 맡고 있는 직임에서 드러난다. 곧 공사의 관할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담당구역의 상급군관이 감동감관을 맡게 되는데, 동헌공사의 경우 감관을 담당할 행수군관은 바로 동래부사의 예하부대를 관할하는 군관청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휘하에 퇴교와 색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초량객사의 경우 감관은 개운포 만호로서 만호는 종4품의 수군 무관이다. 개운포와 두모포는 부산진 휘하에 있는 만호영이었으며 둘 다 절영도를 앞에 두고 남쪽 수변을 지키는 군사적 진지들이다. 따라서 초량객사 공사의 경우 개운포 만호가 공사현장과 목재작별, 운반 등의 감독관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또 초량공해에 머물고 있던 혼도와 별차도 감동조직에 포함되어 있다. 1871년 동래부성을 수축할 때 속오군(동래독진의 주력부대)의 장교인 중군이 도감을 맡고 역소감관을 행수군관 등이 담당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³²⁾

감동조직의 색리는 정확히 어떤 직임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방이나 회계색인 경우 정확히 밝히고 있는 반면 감동조직 또는 책응조직 등에 단순히 색리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 관사관리를 주로 담당하였던 공방으로 짐작된다. 동헌공사 감동조직의 색리인 광서봉, 박진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은 모두 「부청선생안」³³⁾에 312, 339번째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선생안에 이름이 기재된 경우는 대개 작칭의 이임(吏任)을 거쳐 호장 또는 부호장을 역임하였던 인물로서 지방 향리사회의 상층부 구성원이었다.³⁴⁾ 이 중 광서봉은 같은 해 동래부성 축성공사에서 6문의 전체 책응감관이었으며 1876년에는 기영회³⁵⁾에

29) 이러한 체제는 조선 후기 관영공사의 일반적인 양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지방사례연구가 추가되어 비교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30) 「성역급각공해중수기」 참조

31) 「초량객사중수등록」 참조

32) 「성역급각공해중수기」 참조

김숙경, 2003, 「19세기 동래부의 관사영선에 관한 연구」, 『진축역사연구』 35 참조

33) 「항도부산」 창간호, 1962 참조

34) 「부청선생안」은 동래부의 부청 직임을 역임한 인물의 성명을 기재한 것인데 부청이란 작칭이 아니라 호정(戶長)이 업무를 주재하는 부사(府司)나 읍사(邑司)를 일컫는다. 따라서 이들은 대개 호정이나 부호장을 역임한 것으로 추측되며 작칭의 이임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김동철, 2003, 「조선 후기 동래부 吏族 밀양 박씨 집안과 그 고문서」, 『古文書研究』 22

가입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무임 경력도 갖게 된 인물이다.

책응조직은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과 불자의 출급업무를 담당한다. 초량객사 공사의 책응감관은 정3품의 무관인 절충이었다. 동헌공사의 경우는 전·현직 이방이 책응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자재와 재물의 출급에 관해서는 회계색리가 책임을 맡아 담당하였다. 동헌공사의 회계색리인 김계묵의 경우, 같은 해 동래부성 수축공사에서도 책응조직의 색리였고³⁶⁾ 3년 후 초량객사공사에서 직임은 무임이었지만 여전히 책응조직에 편성되어 있었던 인물이다.

한편 성조 조직은 초량객사에만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성조감관 1인, 절충 1인, 색리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공사의 총집행자로서 성조도감 또는 성조감관이 한 명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와 이처럼 감동, 책응, 성조의 세 분야로 조직을 나눈 경우 이 “성조” 조직의 기능은 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807년 전라북도 흥성의 동헌이전공사의 조영조직을 보면 기록상 맨 위에 성조도감이 기록되고 그 아래 감관, 색리, 좌수 등이 기록되고 있다.³⁷⁾ 즉 “성조”는 공사의 총감독이 되는 사람을 세워 도감으로 삼고자 할 때 그를 성조도감 또는 영건도감으로 부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즉 성조와 영건에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이는 향교공사에 조직된 색리를 영건색리 또는 성조색리라고 하면서 공사감독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건축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량객사의 경우는 앞의 예와 좀 다르다. 성조조직은 공사의 대표나 감독의 역할이 아닌 공사의 제반 의식을 담당하였던 조직으로 짐작된다. 객사공사는 특히 전패의 이·환안의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공사였고 의식에 사용되는 경비와 그 절차 또한 비중이 컸으므로 별도의 조직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2. 축성공사의 집행조직

성곽 수축공사는 성첩에 대한 토목공사가 중심이며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정별, 구간별로 몇 개의 역소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먼저 전체 공사를 총괄하는 감동과 책응조직이 있고, 그 하부에 각 역소별로 감관과 폐장을 포함하여 3~6인으로 편성하고 있다. 공사규모

35) 동래기영회는 현종 12년(1846) 3월 동래부에 거주하던 퇴임 이서들과 장교들이 평소 출입이 많았던 학소대 남쪽 마을 학림에 있던 학림거사 윤언서의 초당에 고을 낙양고사에서 이류를 따서 기영계를 창립한 것이다. 창립당시 계원수는 40명이었다. 이렇게 창립된 기영계는 철종 14년(1853)에는 老人契단 명칭으로 재건되고 3월에 文進烈 이의행등이 모여 크게 중흥되었다. 문진열은 동래의 유력한 향반가문의 하나인 남평 문씨이며 최귀위 부관직인 중군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다시 고종 13년(1876) 3월에 윤지수 등 4명의 제의로 도화동에 모여 래산기영회란 이름으로 중흥되었다. 동래기영회, 1984, 『동래기영회140년사』 참조

36) 「성역급각공해중수기」·웅성지성감역초기(甕城雄城監役抄記)

37)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1, 「홍성동헌이전상량문」(1807), 『상량문집』, pp.130~137.

에 따라 조직 편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구조는 거의 같다.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관, 유생, 이서 등 동래 지역의 거의 모든 계층이 집행조직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표 5>는 동래부의 축성공사에서 역소별 조직원의 구성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5. 성역 집행조직 구성 비교

공사명	역 소	역소별 조직원	신 분
1731 동래부성 축성	부석 4소 성곽 4소 문루 5소	역소장 1, 패장 1, 그 외 4 패장 15 패장 15	무관 이서(吏胥) 한량(閑良) 사과(司果)
1859 동래부성 수축	7소	도패장 1, 1패장 1, 2패장 2	무관
1870 동래부성 수축	문루 6소 치성 30소	도감 1, 감관 1, 색리 3, 패장 1 감관 1, 패장 1, 색리 1	무관 이서 한량
	6소	별간역(別看役) 1, 감동1, 감관1	무관 이서 한량
1892 동래부성 수축	8소	감동 1, 감관 1	무관

1731년의 축성공사는 부석소가 4개소, 성곽축성공사의 역소가 4개소, 문루건축공사에 대한 역소가 5개소인데 성곽과 문루의 경우 각 역소마다 그 아래에 15개의 패장체제로 다시 나누어졌다.

1859년의 동래부성 수축공사조직은 성문 간의 구간으로 모두 7개의 역소를 나누고 각 역소마다 모두 무관으로 구성된 도패장, 1패장, 2패장 각 1명씩 구성되어 있다. 또 1892년의 공사에서는 마찬가지로 성문을 기준으로 모두 8개소로 나누고 각각 감동 및 감관 1명씩을 두었고 신분은 무관과 이서(색리)였다. 즉 동래 지역의 축성공사는 무관과 이서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공사규모가 커지면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해 유향도 함께 편성하여 보충하였던 것이다.

1870년 수축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조직은 성문의 문루나 치성별로 구분해서 역소를 나누고 도감, 감관, 패장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3. 조직편성의 기준과 구성원

조직편성은 공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성원의 인적 배경과 당시의 활동상을 추적해보면서 동래 지역 공사조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조직은 공사 경위와 함께 착수 전에 계획, 보고되었고 공사완료 후에도 요즘의 준공보고처럼 성책을 하여 상부기관에 보고하였다. 본 고에서는 대규모 수축공사였던 1870년의 동래부성 공사에서 착수 보고와 최종 보고 단계의 공사조직편성에 변화가 있었던 점을 주목하여 분석의 사례로 삼았다. 이를 통해 이 공사의 특징과 당시의 여건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은 이 공사의 공사조직으로서 ①은 착수보고, ②는 최종보고단계의 조직편성이다.

표 6. 1870 동래부성 수축공사 집행조직

구 분		①	②
책 명		육문옹성치성감역초기 (六門甕城雉城監役抄記)	감동각인성명성책 (監董各人姓名成冊)
총괄 조직	감동	도감동 전오위장 홍우인	도감동 전오위장 홍우인
	책응	도책응도감좌수 문동희 감관중군 박지연 색리이방 윤희권 회계색 김준현 책응감관 광서봉 색리 김계북	책응도청 한량 광서봉 감관 한량 윤사훈 김방열 정한봉
역소별 조 직	동분성	역도감 정기진 감관 송진현 색리 유진환 패장 강위준 김계학 윤상경	남분의성~5치성 별간역 ³⁸⁾ 전사용 정석채 감동 출신 이권영 감관 한량 김계용
	서분성	역도감 박태규 감관 어정우 색리 신성우 패장 김두윤 문헌주 강삼준	동분옹성~5치성 별간역 출신 이린근 감동 한량 강위준 감관 한량 이지운
	압분성	역도감 문규형 감관 이우경 색리 이일전 패장 강성희 김용환 최정립	서분옹성~5치성 별간역 질충 신두연 감동 한량 김용환 감관 한량 강성희
	북분성	역도감 김준권 감관 손성호 색리 윤사한 패장 윤상신 김원근 정봉주	북분옹성~5치성 별간역 진만호 유운태 감동 출신 이종진 감관 한량 윤상신
	인생분성	역도감 김택하 감관 박두연 색리 윤상규 패장 정분형 김원숙	인생분옹성~5치성 별간역 출신 정현경 감동 출신 이태신 감관 한량 손성호
	30치성	감역질 제1차 감관 윤상경 패장 전재숙 색리 송상원 제2차 동삼인 제3차 감관 김시도 패장 색리 김필규 제4차 감관 강삼준 패장 색리 제5차 동삼인 제6차 동삼인 제7차 감관 김시도 패장 색리 제8차 감관 윤상경 패장 전재숙 색리 김예운 제9차 감관 김시도 패장 색리 제10차 감관 박정순 패장 장남규 색리 이재근 (이하 생략)	서암분옹성~5치성 별간역 진만호 박래정 감동 한량 이우성 감관 한량 홍재승

38) 별간역 : 조선시대 국장, 축성 등 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특별히 임명하던 인사 벼슬.

두 조직을 비교해보면 먼저 치성 30개에 해당하는 30개의 치성감역조직을 6개 성문 역소에 5개씩 포함시켜서 상당히 방대한 규모의 조직을 간소화하였으며 인원수도 대폭 줄였다. 이 공사는 성첩과 문부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내 공해에 대한 건축공사도 많았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최종단계의 조직과 같이 6개의 역소에 단 3명의 집행조직원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제 공사는 처음 계획된 조직으로 공사를 전개해 나갔으나 최종 보고 시에 어떤 변수가 작용하여 재정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두 조직의 구성원을 보면 중복되는 인물이 단 3명이다. 최종 조직에는 당초 전혀 조직되지 않았던 인물이 더 많고 이들은 동래 지역의 이임(吏任), 무임선생안(武任先生案)이나 향원(鄉員)으로 찾기도 어려운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 당시 있었던 동헌개건공사의 경우는 계획단계와 최종 보고된 집행조직에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단지 최종 조직에 회계색리와 감관이 추가되었을 뿐인데 이는 공사 진행상 필요에 의해 충원될 수 있는 일로 생각된다.

순영에 최종 보고되는 명단은 사후 포상과 관계가 있다. 여기에서 이 수축공사의 재원이 되었던 원납전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대두시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두 명단에 모두 기록된 사람은 곽서봉, 윤상신, 어정우 등 단 3명뿐이기 때문이다.

먼저 곽서봉의 예를 보자. 그는 1870년의 동헌공사에서 색리로 조직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이서신분이었다. 그리고 동래부성 수축공사에서 처음에는 책응감관으로 책응조직의 말단에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종 명단에는 책응조직 전체의 총책임자인 책응도청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는 이 공사를 위해 1천 5백 냥이나 되는 거금을 원납전으로 내놓았다. 또 5천 냥을 바친 박태규의 경우 당초 서문 성역도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종 명단에는 빠졌다. 하지만 그는 대신 벼슬을 하사받았다.³⁹⁾ 이와 같이 최종 명단의 재정리에는 원납전 납부라는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⁴⁰⁾

한편 당시 1870년 동헌개건공사에서 감동감관을 역임한 박지연의 경우를 보면, 그는 무청의 여러 직임⁴¹⁾을 두루 거친 후 1866년에 기영회에 가입하였으며 공사 당시 별군관청의 수임인 행수군관이었다. 동래부성을 수축할 때는 중군으로서 당초 전체공사의 책응감관을

39) 『고종실록』 9년 7월 3일 을유

동래 부사 정현덕에게 인금의 인장이 찍힌 글과 안팎 옷감을 주는 은전을 배풀어주며 유생 박태규는 첫벼슬에 등용하라코 지시하였다. 경상 감사 김세호가 동래부의 성을 쌓고 관청 건물을 짓는 일에 수명이 자기 녹봉을 털어내고 백성들이 자원하여 분자를 바침으로써 방대한 공사를 끝나칠 수 있었다 하여 표창한 것을 제의하였기 때문이다.

40) 공사재원은 지방관청의 재정으로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18세기 후반부터 인건비 지출부담이 커져 재원확보가 큰 관건이었다. 관청식이나 현분부조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되었는데 원납전은 강제적 성격의 띠 특 별세 라고 할 수 있겠다.

41) 박지연의 부임경력은 정관청의 초관, 파총, 천총, 직대청의 별장, 백총, 별군관청의 병방, 수첩청의 별장 배공, 별기위청의 별장, 백총, 교련청의 기지곡기수초관 등 상당히 많은 부임작을 두루 거쳤다. 김동철, 2003, 앞의 논문 참조

담당하였다. 또 「부청선생안」에 311번째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서 경력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밀양박씨로 고조부 때부터 무임직 경력이 많은 집안출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명단에 그 이름이 제외되었던 것이다. 그는 원납전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 그의 11살 연하인 동생 박두연은 「부청선생안」에 322번째 기록된 이임경력이 있으며 1859년에는 관청색리(수령의 주방비를 비롯한 각종 관용의 쓰임을 관장하는 색리)였고 이후 무임직⁴²⁾도 두루 거쳤다. 그는 1870년의 동래부성 수축공사에서 당초 인생문성역의 감관이었고 3년 후 초량객사 중수공사에서는 성조감관을 맡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수축공사의 최종명단에는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은 원납전 성과의 직접적인 반영은 지방의 계층사회에서 더 이상 향반들의 경제 기반이 부민이나 요호(饒戶)에 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향촌사회의 주도층이 재편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경제력이라고 하는 대원군의 정치적 입장이 지방에서 실현되고 있는 변화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⁴³⁾

〈표 7〉은 19세기 중반 이후 동래 지역의 관영 공사에서 직임을 맡은 인물의 경력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①1859년 동래부성 중수공사, ②1870년 동헌 개건공사, ③1871년 동래부성 중수공사 및 ④1873년 초량객사 중수공사에서의 직임과 관직의 경력사항 및 퇴역한 무임 계층의 계모임인 기영회의 가입 시기 등을 정리하였다.

표 7. 19세기 중반 이후 공사집행조직 구성원 경력 비교

성명	1859 동래부성 중수	1870 동헌개건	1870~1871 동래부성 축성	1873 초량객사 중수	부청선생안 개제순위	직임경력	기영회 입회	생년월일
박지연		감관행수군관	도책응도감 중군		311		1866.4	1805.3.17
문규형		감역도감				1864좌수	1863.3	1816.7.8
박두연			인생문성역감관	성조감관	322	1859 관청색리	1877.4	1816.4.3
정한봉	6소 1패장 가구관	감관군관	6분 책응 한량	성조 절충			1876.3	1826.3.23
곽서봉		색리	6분 책응감관		312		1876.3	1821.3.25
김계복		회계색	6분 책응 색리	책응 절충	346		1888.9	1824.2.20
구봉상					218	1818 색리	1853.3	1801.1.4
윤호권		책응이방	6분 색리이방	이방	358	1869-73 이방		
이기영				책응감관 절충			1876.3	1824.10.9
변택호				책응색리	335		1887.9	1824

42) 장관청의 친충, 별군관청의 행수, 병방, 수첩청의 별장 및 運翰堂의 행수집사 등을 두루 거쳤다. 金東哲, 2003, 앞의 논문 참조

43) 연갑수, 앞의 책, pp.228~235. 참조

성명	1859 동래부성 중수	1870 동헌개건	1870~1871 동래부성 축성	1873 초량객사 중수	부청선생안 기재순위	직임경력	기영회 입회	생년월일
송상중				색리	395	1872 병방색	1897.6	1828
유진환			6분 담당색리		348		1876.3	1820.11.24
박진원		색리			339	1872 방역도색		
송상원		圭寫	2치성 색리		405			
여정우	5소 도패장 기구관		남문 성역감관				1876.3	1819.9.25
어명구			제30지 감관		330		1866.3	1817.11.24
정효근	5소 1패장 별기위백총						1887.9	
김필규			3치성 색리		338			
윤상규			인생분 색리		319			

공사의 집행조직원의 상당수가 기영회에 있는 것은 행정체제의 중심이 된 계층이 당시 이서와 무임을 두루 역임하였음을 말해주며, 비슷한 시기에 반복해서 공역의 집행조직에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동시에 이 지방 향반으로 신분이 발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은 19세기 관영으로 진행된 동래 지역의 동헌과 동래부성 축성공사를 중심으로 관영공사의 여건과 전개과정 및 집행조직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건축활동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적·행정적 구조와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의 동헌은 1870년 부사 정현덕이 건축한 것으로 임란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동헌건물은 28간의 정청이며 전면에 남랑 5칸, 동랑 8칸이 연결되어 있으며 중문과 대문 및 중층 문루 등이 있었고 북측에 내아가 연결되어 있었다. 동헌개건공사를 통하여 19세기 동래 지역의 관영공사가 자체적으로 완결된 수급체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재공급은 봉산에서 관급목재를 조달받고 동시에 봉산과 사양산 송전매입이 추진되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주변 기장, 양산 등지에서 공급받았다.

둘째, 축성공사는 동래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가장 강하게 부각되는 공사였다. 임진왜란 이후 버려졌던 읍성을 1731년 크게 축성하였다. 성곽은 6개문, 15개 보루체제였으며 동래

부사가 직접 관리하였고 부분적인 수축공사가 19세기까지 꾸준히 지속되었다. 대원군 집권기, 군비 증강과 함께 대규모 수축공사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성문구조가 옹성과 중성구조로 변경되었으며 30개의 치성을 쌓고 포루를 두는 등 성첩의 구조가 변경, 확충된 공사였다.

셋째, 공사조직은 공사계획 시와 완료 시에 상부에 보고되었고 지방관과 지방 관속 및 향촌사회의 중심계층으로 편성되었다. 조직은 감독조직인 감동과 내부사무와 불자조달을 담당한 책임조직으로 대별된다. 동헌공사에서는 향청의 좌수가 감역도감을 담당하고 무관의 대표가 감관을 맡으며 그 아래 색리가 책임을 담당하는 구조로 편성되었다. 축성공사는 토목공정이 중심이 되며 공사범위와 규모가 방대하므로 먼저 축성, 문루건축, 부석 등의 공정에 따라 역소를 세분하고 각각 패장 1인, 감관 1인, 색리 1인 등을 조직하였다. 감관은 주로 무관이 담당하였고 색리는 내부사무 등 책임담당이었고 패장은 역소에 배치된 다수 역부를 거느린 기술자였다.

넷째, 1870년 동래부성의 축성공사는 역소별로 일관되게 편성되었지만 포성과 관련되는 최종 보고 시에는 원납전 납부여부와 금액의 고가에 따라 조직을 크게 변경하였다. 막대한 공사금액을 특별세인 원납전으로 징수, 충당하였던 것이며 이는 충분한 공사계획과 준비 없이 다소 긴박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향촌사회의 중심계층이 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公文日錄」,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18149 (『各司謄錄』 12)
 「慶尙道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10512
 「東萊府築城謄錄」,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11076 (『各司謄錄』 13)
 「城役及各公廨重修記」,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18133
 「草梁客舍重修謄錄」,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18136 (『各司謄錄』 13)
 『高宗實錄』 CD-ROM
 여강출판사, 1989, 『東萊史料』 1·2·3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5, 『(국역)萊府日記·多大鎭公文日錄』
 關野貞 저, 강봉진 역, 1990, 『한국의 건축과 예술』, 산업도서출판공사
 동래기영회, 1984, 『동래기영회140년사』
 연갑수, 2001,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윤용출, 1998,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숙경, 2004, 『조선후기 동래 지역의 관영공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3, 『19세기 동래부의 관사영선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35
 김강식, 1993, 『17·18세기 부산의 행정과 관방』, 『항도부산』 제10호
 김동철, 2003, 『조선후기 동래부 이족 밀양 박씨 집안과 그 고문서』, 『고문서연구』 22
 민선희, 1993, 『조선후기 동래의 향반사회와 무청』, 『역사학보』 제139집, 역사학회

Abstract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managed Constructions at Dongnae Province in the 19c

Kim, Sook 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ocess and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managed constructions by reviewing official documents and materials in regard to the official residences and castles officially constructed in Dongnae in the 19c of Chosun Dynasty.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described as follows.

1) The construction of official residences required exchanges of official documents among upper and lower governmental agencies concerned. Previously prepared for some 1 or 2 months, the construction was proceeded through processes from Paok to Gaegi, Ipju, Sangryang, Gaeok and to Iptaek. Such construction was carried out independently and concurrently Gijang and Yangsan neighboring Dongnae provided cooperation by way of supplying labor and timbers.

2) Dongnaebu Castle was constructed under local autonomy system, like other government-oriented works, as governor of Dongnae became responsible for defending such establishment in 1739. The castle was built up in 1731 as an establishment with 6 gates and 15 forts. Directly controlled by governor of Dongnae, the castle continued to be partially repaired until the 19th century. Under the regime of Daewongun, the castle was enlarged and extended for military strengthening. Besides the gate having double-gated structure for the outside wall, the other five gates came to have bastions and 30 forts were

additionally established, dramatically changing the structure of the castle as whole.

3) Government-managed construction was often implemented by an organization whose members included local government officials, lowe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influential persons. The construction of official residences was implemented by Gamyekdogam which was headed by Jwasu of Hyangcheong. In the construction, chief of military officials became supervisor, who was responsibly supported by Saekri. The construction of castles were divided into several works, for example, establishments of fortress, tower gate and quarrying stone were implemented by the organization of Paejang, Gamkwan and Saekri. As a military official, Gamkwan supervised the construction. Saekri was in charge of related internal affairs. Paejang was an technical expert leading several workers. The construction of castles in 1870 were organized as a general rule having particularity of social conditions in Dongnae.

keyword : government-managed construction, Dongnae, official documents, local autonomy system, organization